

# 07

## 『패전후론』과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_내셔널리즘 이론에 의한 분석

■ 김만진 ■

### Contents

---

1. 서론
2. 『패전후론』 논의의 내셔널리즘 이론적 분석
  - 1)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 2)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
  - 3) 단일민족관의 변용
  - 4) 이중적인 타자 인식
3.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후반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전후(戰後) 새로운 양상의 내셔널리즘으로 파악되면서 소위 '역사주체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큰 논쟁화한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 논의를 사회과학의 틀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패전후론』을 비롯한 가토의 여러 저작에 나타난 논의를 현대 내셔널리즘의 이론들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내셔널리즘 이론들을 도입하는 한편으로, 『패전후론』에서 드러난 주요 논의를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양태인 '일본문화론' 및 '역사수정주의'의 논의와 비교하는 시점을 취함으로써, 『패전후론』이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패전후론』의 논의는 논리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패전후론』 논의의 특징을 ①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②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 ③ 단일민족관의 변용, ④ 이중적인 타자인식이라는 4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특징은 가토의 논의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말하는 '전기적(前期的) 내셔널리즘'의 성격에서 이탈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에 이는 존 허친슨(John Hutchinson)이 말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cultural nationalism)'의 이념형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한편, 가토가 주요한 논적인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와의 논쟁 과정에서 집요하게 고집하는 '주체-타자'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고려할 때, 『패전후론』의 논의는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토가 시도하고 있는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의 이탈'(단일민족관의 변용)과는 충돌하고 있다. 이는 가토가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에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에스노스적 의미에서의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근대주의적 네이션 관념을 취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또한 이 논문은 『패전후론』에 나타나고 있는 서양과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메이지 이후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타자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중적인 것임을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의 '쌍-형상화 도식'(對-形象化の図式, the schema of co-figuration)을 이용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 '이중적 타자인식' 역시 가토의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과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며 오히려 경계주의적 시점과 친화적인 것이다.

#### 주제어

가토 노리히로, 패전후론, 역사주체논쟁, 일본 내셔널리즘, 원초주의적 네이션

## 1. 서론

1995년은 일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였다. 종전 50주년이란 수사는 그 자체로 일본의 전후(戰後)를 매듭지을 중요한 기점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전후 정치의 청산이라는 이런 흐름은, 사실 냉전체제의 붕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이후 이미 감지되어 오던 것이었다. 냉전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작동한 미일동맹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일본제국주의 전쟁 피해 '증언자'들은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일본은 구조 뒤에 숨어서 피할 수는 없는 입장, 답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참혹한 기억을 가지게 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국제적인 연대 위에 일본의 죄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1993년 8월의 고노 담화(河野談話)나 11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의 소위 '진사(陳謝) 발언' 등은 이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종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사회당 출신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의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전후 청산노력의 가장 단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전후 정치의 청산 움직임에 반발하는 형태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논쟁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즈(藤岡信勝),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이 중심이 된 소위 '자유주의 사관'(自由主義史觀)파는 1995년 1월 '자유주의사관 연구회'(自由主義史觀研究会)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1997년 1월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1999년 10월에는 대중역사서 『국민의 역사』(國民の歴史)를 발간한다. 이른바 '새역모'가 주동이 된 자유주의 사관파는 책이 발간되기도 전인 1997년 12월부터 이른바 '국민의 역사(國民の歴史) 예약운동'을 벌였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1998년 9월경에는 이미 23만부의 예약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sup>1)</sup> 이후 '새역모'는 실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이 '새역모'의 목표가 사실의 기술보다는 기존 역사의 전면적 수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은 '역사수정주의'(history revisionism)로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관'파의 역사수정주의는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이렇듯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지식인 집단에서 이런 논의에 공감하는 이는 비교적 소수였다. 일본 침략전쟁의 부정이라든가, 중군위안부의 증언 자체를 거짓말로 매도하는 '전쟁책임 부정론'의 형태를 띤 역사수정주의적 역사서술에 대한 일본 지식인 집단의 반응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전후 호헌파(護憲派)의 입장에 있지 않았던 일본의 보수적 지식인들은 한층 정교하고 세련된 전쟁책임론의 형태를 띤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

1)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編,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という運動がある』(東京: 扶桑社, 1998), p. 323.

후론』(敗戦後論)에 매우 큰 관심을 드러냈다. 가토는 1995년 1월 화제의 논문 「패전후론」을 발표하고 난 직후부터 '일본판 역사기논쟁'의 주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8월에는 「전후후론」(戦後後論), 1997년 2월에는 「말투의 문제」(語り口の問題)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전쟁책임론과 관계된 대표적인 논자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의 논의와 이를 비판하는 측 사이에서의 반론의 연속은 이후 큰 논쟁화되어 '역사주체논쟁'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sup>2)3)</sup> 이후 위의 세 논문을 담은 단행본 『패전후론』이 1997년 8월 출간된 이후에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지게 되면서 지식인층 이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sup>4)</sup>

가토는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은 침략전쟁이었으며 무의미한 전쟁이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 가토 자신은 후지오카나 니시오 등의 역사수정주의자와는 선을 긋고 있으며, 오히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전쟁책임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논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 자신의 입론은 전후 일본 내 서널리즘론의 새로운 한 형태임을 인정하고 있다.

짧은 지면에 소개하기는 무리이지만, 『패전후론』의 논의를 간략하게라

2) 「敗戦後論」은 1995년 1월 『群像』에, 「戦後後論」은 1996년 8월 『群像』에, 「語り口の問題」는 1997년 2월 『中央公論』에 발표되었다. 이후 전자의 2편(「敗戦後論」과 「戦後後論」)은 일부 수정되어, 마지막 논문과 함께 묶여 1997년 8월 고단샤(講談社)에서 『敗戦後論』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97년의 단행본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가토 노리히로,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전후 일본의 해부』(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3) '역사주체논쟁'이라는 용어는 西島健南이 「歴史主體論争: 戦後日本の再構想に一石」, 『朝日新聞』 1997년 5월 17일자 조간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4) 이 무렵 일본의 논단에서 이 책의 영향력은 매우 컸기 때문에, 2002년에 헤이본샤(平凡社)에서 발간된 『내셔널리즘론의 명저 50(ナショナルリズム論の名著 50)』에 이 책이 한 장을 차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大澤真幸 編, 『ナショナルリズム論の名著 50』(東京: 平凡社, 2002). 한편 아사히신문은 『敗戦後論』을 1997년 일본의 논단에서 가장 화제가 된 책이라고 평가한다. 『朝日新聞』 1997년 12월 2日.

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패전 후의 일본은 호헌파와 개헌파라는 두 개의 인격으로 분열되었다. 이 둘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 대항관계’를 이루고 있어 일본의 국민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전쟁책임을 지기 위한 주체(책임주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피해국의 사자(死者)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일본인 사자들에 대한 애도를 선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애도공동체 즉, 책임주체(국민주체)만이 외부를 향해 제대로 된 애도나 사죄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으며’ 그 결과 전후 일본의 기만(欺瞞)의 시작점이 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재선택 되어야한다.’<sup>5)</sup>

그렇다면 90년대 중후반 매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러한 『패전후론』의 주장은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논의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며 90년대 중반에 새롭게 등장한 『패전후론』의 논의는 ‘역사수정주의’와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차별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논의의 주요한 양태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시기 동안 유지되었던 ‘일본문화론’(日本文化論)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논문은 ① 『패전후론』의 논의, ② 역사수정주의, ③ 일본문화론을 전후 일본의 주요한 내셔널리즘 양태로 규정하면서, 이들 논의는 어떤 상호관계 안에 있고 각각 어떠한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5) 『패전후론』 및 이에 따른 논쟁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이를 위해서는 줄고, 『패전후론』 논쟁 연구: 戰後 일본 내셔널리즘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년 8월)의 2장과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 2. 『패전후론』 논의의 내셔널리즘 이론적 분석

### 1)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패전후론』 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점인데, 이점에서 메이지기 일본 근대 국가 형성시기의 내셔널리즘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일본 근대 국가 형성기의 내셔널리즘은 이른바 ‘위로부터 동원된 것’, 즉 지배엘리트가 주도하여 강제적으로 이끌어낸 성격의 것이었다. 이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말하듯 자발적인 인민의 참여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서구열강과 맞서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국가관의 형식을 띠게 된다. 마루야마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정신구조에서, 국가는 자아(自我)가 그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제1차적 그룹(가족이나 부락)의 직접적 연장으로 표상되는 경향이 강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은 두드러지게 환경에 대한 사랑으로써의 향토애로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 모든 내셔널리즘의 기원으로서의 부족주의에 공통된 요소인데, 근대 내셔널리즘, 특히 ‘프랑스 혁명의 아들’(G. P. Gooch)로서의 그것은 결코 단순한 환경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투표이다”라는 유명한 르낭(Ernest Renan)의 말에 표상되는 그런 고도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수반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내셔널리즘이 인민주권의 원리와 결부됨으로써 얻은 가장 귀중한 역사적 수확이었다(그러므로 일본에서도 메이지 초기의 자유민권운동이 담당한 내셔널리즘에는 불철저하지만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신의 그와 같은 변혁 방식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민중들 사이의 자발적·능동적인 국민적 연대의식의 성장에 의존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들의 끊임없는 대외적 위기감으로 인해 급속한 애국심의 환기가 필요하게 되어, **국가교육에 의해 그것을**

위로부터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sup>6)</sup>

요컨대 마루야마는, 근대 일본국가 형성기의 내셔널리즘은 인민적(국민적) 연대의식의 자발적 성장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위로부터 동원된' 성격의 것, 이른바 '내셔널리즘과 데모크라시가 행복하게 결합하지 못한', '내면적으로 합리화되지 못한 내셔널리즘'이었으며, 그 결과 훗날 일본은 '초국가주의로의 경사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미 1951년의 이 논문에서 마루야마는, 패전 후 외부의 힘에 의해 붕괴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그 중심점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저변으로 환류해 들어갔지만, 훗날 이것이 다시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구조 원리로 인해 '도랑을 흐르는 물과 같이' 과거의 반동적인 방향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7)</sup> 이는 메이지기, 쇼와기의 내셔널리즘을 경험한 일본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의 발호에는 일정한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일 터이다.

그리고 1970, 80년대의 일본문화론을 '아래로부터의' 문화적 내셔널리즘(cultural nationalism)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설 경우, 이러한 마루야마의 예측은 일단 적중한 것으로 보였다. 전후 상당기간 동안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있어서 '국가 주도형의 위로부터의 동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논의는 마루야마의 설명과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일본문화론이 가장 융성했던 70, 80년대까지 일본문화론을 파악하는 일본 국내외의 지배적인 견해는, 그것은 국가와는

6)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서울: 한길사, 1997), pp. 206-207. 강조는 인용자. 한편 이 논문은 『中央公論』 1951년 신년호에 「日本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 その思想的背景」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된 것이다.

7) 마루야마 마사오(1997), p. 214.

관계없는 것, 단지 일본의 특수성·독자성을 설명하는 저술들이 '지식인'들에 의해 제출되고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으로만 설명되었다. 이는 일본에서만 현상은 아니어서, 예컨대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문화적 내셔널리즘을 논한 존 허친슨(John Hutchinson)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내셔널리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에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sup>8)</sup> 이는 일본 문화론을 연구하는 다른 논자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일본문화론 연구자 중 하나인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의 연구에서도 일본 문화론이라는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일본 국가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sup>9)</sup> 요컨대, 일본문화론을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시점은 이를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류적인 시각은, 비록 소수의 견해이지만 70년대 중반의 심받은 바 있다. 이미 1975년의 연구에서 존 할리데이(Jon Halliday)는 맑시스트적 수정주의의 입장에 서서 일본문화론의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적했다. 할리데이에 의하면, 일본문화론은 일본의 지배 계급(지배엘리트)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할리데이의 연구가 이 논문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문화론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성격규정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8) John Hutchinson,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The Gaelic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Irish Nation State* (London: Allen & Unwin, 1987). 특히 1장을 보라.

9) Kosaku Yoshino, *Cultural Nationalism in Contemporary Japan: a Sociological Enquiry* (London: Routledge, 1992). 이 책은 일본어로 수정 보완되어 다시 출간되었으며 이 일본어판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吉野耕作, 『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社会学: 現代日本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行方』(名古屋市: 名古屋大学出版会, 1997); 요시노 고사쿠,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현대 일본 아이덴티티의 행방』(서울: 일본어뱅크, 2001).



선구적인 연구라는 점이다.<sup>10)</sup>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문화론의 이데올로기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하루미 베푸(Harumi Befu), 요시오 스키모토(Yoshio Sugimoto), 로스 마우어(Ross E. Mouer) 등에 의해서 행해졌지만, 여전히 일본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들의 역할보다는 지식인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성을 논하는 경향이 강했다.<sup>11)</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리 하루투니언(Harry D. Harootunian)이나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등에 의해 문화적 내셔널리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카이는 ‘일본인은, 혹은 일본문화는 독특하다’는 일본문화론의 주장은 서양이라는 타자, 그것도 일본보다 우월한 타자를 향한 열등감의 표출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는 명백히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지만, 사카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문화론이라고 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에서의 일본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들이 행한 역할에 주목했다. 사카이에 의하면, 일본문화론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은 독특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일본 국가와 지배엘리트가 미국의 냉전전략과 결합된 담합체제 속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사카이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천황’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일본문화

10) Jon Halliday,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5).

11)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Harumi Befu(eds.), *Cultural Nationalism in East Asia: Representation and Identity*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Ross E. Mouer and Yoshio Sugimoto(eds.), *Japanese Society: Reappraisals and New Directions* (a special issue of *Social Analysis*, no. 5/6) (Adelaide: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1980); Ross E. Mouer and Yoshio Sugimoto, *Images of Japanese Society: A Stud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Keagan Paul International, 1986).

론의 담론체계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의 논의였다. 2000년 이후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해낸 문서에는 미국 정부 정책에 이러한 뜻이 담겨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sup>12)</sup>

결론적으로, ‘일본문화론은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다’라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는 점을 최근의 연구는 밝혀내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보수 이데올로그 등에 의해)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그보다는 다시 ‘위에서’ 이를 조장하고 협력한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의 의도에 의해 발전된 내셔널리즘인 것이다.<sup>13)</sup>

이 점에서 일본문화론은 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역사수정주의와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일본 역사수정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며, 일본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이 시기 일본 역사수정주의는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반정부적·반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인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이

12) 타카시·후지타니, 「라이샤워-元米国大使の傀儡天皇制構想」, 『世界』, 通卷 第672号 (2000年 3月), pp. 137-146. 이 논문에서 후지타니는 미국과의 담합에 의해 성립된 쇼와 천황 체제를 ‘괴뢰정권’(puppet regime)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후지타니는 이 논문에서 자신이 발굴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dwin O. Reischauer, “Memorandum on Policy Toward Japan”, 14 September 1942; with materials collected by War Department General Staff, Organization and Training Division, G-3, concerning “Enlistment of loyal American citizens of Japanese descent into the Army and Navy”, 17 December 1942; 291.2 Army-AG Classified Decimal File 1940-42;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17-, Record Group 407; Entry 360; Box 147;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D.

13) 酒井直樹, 「誰が‘アジア人’なのか?」, 『世界』, 通卷 第683号 (2001年 1月), pp. 239-246.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을 ‘파퓰리즘형의 운동’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는 전전(戰前)의 ‘풀뿌리 우익’의 움직임과 유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말하자면 파퓰리즘형의 운동을 ‘자민당·문부성이 일관되게 주도해온 (좌파) 교과서에 대한 공격의 일환’, ‘우익’, ‘파시스트’ 등이라고 공격해도 그들은 이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동의 참가자들에게는 스스로가 ‘체제 측’이라는 자각도, ‘우익적인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고, 단지 ‘건강’한 ‘상식 = 리얼리즘’에 따라갈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런 분석에 의할 때, 90년대 중반의 일본 역사수정주의가 결과적으로 잠깐 동안의 대중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파퓰리즘형 운동은 ‘위로부터’ 견인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구심점을 잃고, 교과서 채택률이 저조하게 되자 2000년 이후에는 점차 그 세력이 약해져갔다. 마루야마가 일본 근대 형성초기의 ‘전기적(前期的) 내셔널리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위로부터’ 동원만이 존재하였을 뿐 자발성과 주체성을 수반한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마루야마의 표현으로는 자발적·능동적인 국민적 연대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데에서 찾은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마루야마가 르낭의 “국민의 존재는 매일 매일의 투표다”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위로부터의 내셔널리즘’과 ‘국민이 주체가 되는 데모크라시’의 행복한 결합을 일본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의 논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일본의 내셔널리

14) 小熊英二·上野陽子,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3). p. 20.

즘을 ‘관 주도 내셔널리즘’(official nationalism)이라고 규정한 것은<sup>15)</sup> 단지 바쿠후(幕府) 말기부터의 소위 ‘전기적 내셔널리즘’에 대한 설명일 경우에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 앤더슨은 이후의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토에 의해 제기된 『패전후론』은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논의 스펙트럼 위의 어디쯤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선 허친슨이 논한 문화적 내셔널리즘과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허친슨에 의하면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그 중심세력이 민속학자나 역사가, 예술가, 저널리스트 등의 지식인이며, 따라서 일단은 국가 혹은 지배엘리트와 관련이 없는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sup>16)</sup> 이러한 허친슨의 주장은 가토의 『패전후론』 논쟁의 사례와 조응하고 있다. 가토는 전공투세대 출신의 교수이자 평론가이며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는 인물이다. 또한 문화적 내셔널리즘이 집합적 정체성의 새로운 근거를 구축하려고 하는 때는 그 사회가 전통주의자와 근대주의자로 양극화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한 허친슨의 논의도,<sup>17)</sup> 『패전후론』 논쟁 당시의 일본사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1995년부터 몇 년 간의 일본은 종전 50주년을 맞은 이후, 일본의 전쟁책임, 종군위안부문제 등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호헌파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다. 가토가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를 비롯한 자신에 대한 비판자들을 ‘외래사상에 물든 강단 지식인’이라고 폄하하면서, 정작 자신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의 세계

1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특히 6장을 보라.

16) Hutchinson(1987), pp. 8-15.

17) Hutchinson(1987), pp. 30-40.

로 빠져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토가 ‘야스쿠니파’라고 지칭하며 자신과 그들 사이에 선을 긋고자 했던 부류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당시 국회의원 혹은 행정부 각료 등의 지배 엘리트였는데, 여기에서도 ‘위로부터의’ 견인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자면 가토의 논의는 허친슨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이념형과 상당히 가까운 것인데, 이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와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역사수정주의는 ‘위로부터의’ 견인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힘을 잃어버린 것에 비해, 가토는 ‘위로부터의’ 견인을 대신할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근대 형성초기의 소위 ‘전기적 내셔널리즘’이 성립될 당시, 마루야마는 민중들 사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적 연대의식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본 것에 비해, 가토는 이제 그 필요조건은 성숙되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국민의 존재는 매일 매일의 투표다”라는 르낭의 언설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즉 데모스(demos)적인 국민주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성숙되어 있으므로, ‘자국의 300만 사자에 대한 애도 행위’를 통해 데모스적 국민주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위로부터의’ 견인을 대신할 동력을 가토는 찾으려 했다. 르낭의 ‘투표행위’가 가토에게서는 ‘애도행위’로 전환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파에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데모스적 국민주체 형성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던 역사수정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 2)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

한편 ‘내가 나여야만 상대방을 마주 대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가토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로(‘주체-타자’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문제), 말하자면 데모스적 네이션(nation)으로서의 주체 형성(사회 주체의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야 타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sup>18)</sup> 여기서 가토의 원초주의적(primordial)인 발상을 엿볼 수 있다.

네이션이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빈번한 사회 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내구적인 기반을 가지고 존속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시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원초주의(primordialism)와 경계주의(boundary approach)가 그것이다. 원초주의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집합체 내부의 지속적 특질, 이른바 원초적 기반(primordial ties)이 네이션을 성립·존속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경계주의에서는 자기와 타자 사이의 상징적인 경계과정(boundary process)을 네이션의 성립과 존속의 가장 커다란 조건으로 생각한다.<sup>19)</sup>

네이션에 대한 원초주의적 관념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원초주의의 입장에 서서 ‘원초적 기반’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에드워드 실즈(Edward Shil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원초주의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집단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기반과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의 기반을 염두에 두었다. 즉 ‘자연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기반으로서의 공동체의 구성기반을 중요시하는 입장

18) 다카하시는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였으며, 이후 『패전후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점과 관련해 다카하시의 여러 차례 논문으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요약된 논문집으로는 다음을 보라. 高橋哲哉, 『戰後責任論』(東京: 講談社, 1999).

19) 이 점에 대해서는 吉野耕作(1997)의 2장이 훌륭하게 이론적 틀을 정리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원초주의에서는 네이션(민족) 공동체의 시간적 지속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예컨대 민족의 기원 및 그 신앙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민족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세대 간에 계승되는 문화에 의한 통합을 중심 과제로 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구성 문화 항목에 대한 내용분석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실즈에 이어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해럴드 아이작스(Harold Isaacs) 등도 이 입장에 섰다.<sup>20)</sup>

경계주의는 이러한 원초주의의 입장, 즉 집합체를 구성하는 문화 항목에 대한 내용분석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와 타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네이션을 정의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원초주의의 안티테제로 등장했다. 예컨대 에드먼드 리치(Edmund R. Leach)는 미얀마의 카틴족에 대한 연구에서, 카틴족을 하나의 네이션 집단일 수 있게 하는 요인은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에서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근 집단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비로소 밝혀지게 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무엇으로 인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회가 성립되는가에 관한 통설은 아무리 보아도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sup>21)</sup> 이의 연장선상에서 훗날 프레데릭 바르트(Fredrik Barth)는 네이션을 상징적인 경계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점을 정착시키게 된다. 바르트는 “분석의 요점이 되는 것은 집단을 정의하는 네이션의 경계이며, 그것이 포함하는 문화적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sup>22)</sup> 존 암스트롱

20) Edward Shils, “Primordial, personal, sacred and civic 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8-2 (Jun., 1957), pp. 130-145; Clifford Geertz, “The integrative revolution,” in Clifford Geertz(eds.),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New York: Free Press, 1963), pp. 105-157; Harold Isaacs, *Idols of the Tribe* (New York: Harper & Row, 1975).

21) Edmund R. Leach, *Political System of Highland Burma*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54), p. 281.

22) Frederik Barth, “Introduction,” in Frederik Barth(eds.),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London: Allen and Unwin, 1970), pp. 9-38.

(John A. Armstrong) 역시 네이션을 유사 이래의 오래된 현상으로 보면서도(역사주의, historicism의 입장), 그것이 인간 사회에 ‘자연적으로 갖추어진’ 어느 정도 고정적인 내부 특징을 지닌 원초적인 기반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되는 경계 과정의 결과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sup>23)</sup> 요컨대 고도의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사회에서는 네이션 간의 문화 항목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와 ‘타자’의 경계가 유지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경계주의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론적 대립을 고려해볼 때 가토의 논의는 전자, 즉 네이션에 관한 원초주의적 시각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토가 말하는 바, ‘타자와의 관계없이 존재하고’, ‘부정하고 부정해왔지만 깨어지지 않는’ ‘일본인성’ 혹은 ‘일본인의 실감’이라는 것은 바로 실즈나 기어츠, 아이작스가 말하는 원초적 기반에 다름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토는 ‘지상에 노출된’ 지름 2미터 정도의 토관(土管)을 상징하고, 이 토관의 안과 밖에서는 ‘일본인’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푸코(Michel P. Foucault) 류의 담론에 의거하여 ‘일본인’ 개념의 허구성을 내세우는 논의는, ‘일본인’이 ‘우리’라는 ‘통합의 감각’으로서 생겨난 토관 안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관 밖으로부터 분필로 자국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역사성과 허구성이란 ‘서로를 배제하는 공존 불가능한 개념’이며, 진정한 역사는 토관의 안쪽에, 외부로부터는 필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내재’의 영역으로서 존재한다고 주

23) John A. Armstrong, *Nations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요시노가 지적하듯이, 보통 역사주의는 원초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암스트롱의 경우가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계주의의 시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논자이다. 그러나 원초주의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吉野耕作(1997), p. 42. 필자는 이 논문의 뒤에서 다루게 되는 이효덕(李孝德)의 경우에도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계주의의 시점 위에 있다고 본다.

장한다. 요컨대 ‘우리 일본인’의 ‘실감’이 어딘가에, 어떠한 담론도 없이, 어떠한 픽션도 없이 순수 내재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논리이다.<sup>24)</sup>

이 점에 대해서 다카하시 데쓰야는 이는 ‘헤겔 이전적인 발상’ 혹은 ‘자폐하는 내셔널리즘’이며, 이런 논의 자체가 ‘실감’의 ‘실정성’(實定性, positivité)을 산출하는 또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으며,<sup>25)</sup> 이효덕(李孝德) 역시 베네딕트 앤더슨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가토 스스로 앤더슨을 자기 입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상의 공동체 너머에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앤더슨은 중시하고 있는데 이를 가토가 빠뜨리고 있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며 논박했다. 요컨대 이효덕은 가토가 말하는 ‘일본인의 실감’이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즉 경계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유동적인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가토를 비판한다.

‘일본인’이라는 형상은 근대가 낳은 산물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근대 국가 ‘일본’의 형성기에, 곧 ‘서양과 자신을 견주면서 오키나와인이나 아이누 등 북방 소수 민족을 동화하고, 청일·러일 전쟁을 거쳐 대일본제국을 형성하던 시기에 조선인·대만인을 비롯한 식민지하의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제국주의 확대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서의 명예’나 ‘우선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애도’라는 논의에는 결정적으로 이 ‘역사가 빠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은 반드시 비일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범인테도, 이 비일본인과의 관계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것에 의해 ‘일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가 ‘일본인으로서의 명예’나 ‘우선 일본인에 의한 일본

24) 加藤典洋, 『日本人の岬』, 『へるめず』, 通卷 第56号 (1995年 7月), pp. 17-31.

25) 高橋哲哉, 『哀悼をめぐる会話』, 『現代思想』, 第23卷 第12号 (1995年 11月), pp. 243-244; 柄谷行人·浅田彰·西谷修·高橋哲哉, 『共同討議: 責任と主體をめぐる』, 『批評空間』 II-13 (1997年 4月), pp. 13-14. 물론 여기서 다카하시가 사용하는 ‘실정성’(實定性, positivité)이라는 말은 푸코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1969). 한국어판에서는 positivité를 ‘실증성’(實證性)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인 애도’라는 논의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sup>26)</sup>

여기서 이효덕은 일본 내이션 형성을 설명하는 가토의 논의가 원초주의적인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꼬집고 있다.

원초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경계주의적 시각은,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이나 에드워드 사이드 이후에 빈번하게 논의되는 타자성(他者性) 구축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오리엔트는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이드의 언설이나, ‘중주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식민지’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경계주의자들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를 일본의 상황에서 보자면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은, 일본국민이라는 유기적인 전체성의 외부에 자리 잡은 상상의 관찰자를 향하여 구축된 것이며, 이 상상의 관찰자야말로 습관적으로는 서양이라고 불리는 존재인 것”이라는 사카이 나오키의 지적,<sup>27)</sup> 혹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케우치 요시미의 표현을 빌자면 ‘아시아는 유럽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 자기를 의식하지 못했으며, 서양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서야 비로소 아시아는 문화적·민족적·국민적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sup>28)</sup> 당연히 이들의 논의에는 내이션 형성에 관한 원초주의적 시각에 대한 회의(懷疑)가 기본적인 전제로 되어 있다.

물론 경계주의적인 시각만으로 내이션의 형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26) 李孝德, 『「よりよい日本人」という形象を超えて: 誇りと吊いの前に』, 小森陽一·高橋哲哉 共編,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東京: 東京大學出版会, 1998), pp. 117-118. 강조는 인용자.

27) 酒井直樹(2001), pp. 245-246.

28) 다케우치 요시미, 『일본과 아시아』(서울: 소명, 2004), pp. 17-63. 이 논문은 1948년 4월에 집필된 것인데 초출은 다음과 같다. 竹内好, 『中国の近代と日本の近代: 魯迅を手がかりとして』,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編, 『東洋文化講座 第3巻: 東洋的社会倫理の性格』(東京: 白日書院, 1948).

특히 요시노가 지적하듯, 경계주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경계주의는 네이션의 동질성 유지를 자타의 구별·대립의 경계과정의 결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구성 항목의 특징을 경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종교와 지역, 계급 등의 다른 집합적 연대나 아이덴티티와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구별이 모호하게 된다. 또한 경계주의는 원초주의의 ‘문화’ 항목에 대한 공격에 주로 초점을 맞추으로써 집단의 기원에 관련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경계주의의 원초주의에 대한 비판은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주의만으로 네이션의 형성과 유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다시 사카이의 질문을 원용한다면, ‘도 대체 무엇이 일본인가?’에 대해서 원초주의의 입장만으로는 적절한 답을 제출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네이션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가토의 이런 원초주의에의 고집은 일본문화론의 그것보다도 훨씬 완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0, 80년대에 유행한 일본문화론의 네이션 관념은 이른바 ‘역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할 만한 ‘자민족 주변주의’(ethnoperipherism)적인 발상이었다.<sup>30)</sup> 전통적으로 일본문화론에서 논해졌던 일본의 독자성은 외국, 구체적으로는 주로 서양, 개국 이전에는 중국과의 차이였는데,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들’과 ‘그들’을 둘러싼 상징적 경계 과정, 즉 “‘우리들’이라는 감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차이(difference)가 강조되는 과정”의 결과 네이션은 생겨나고

29) 吉野耕作(1997), pp. 27-28.

30) ‘자민족 주변주의’란 용어는 요시노 고사쿠의 연구에서 빌린 것이다. 吉野耕作(1997), p. 105.

있었던 것이다.<sup>31)</sup> 80년대 이전 행해진 일본문화론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일본문화론의 네이션 관념이 원초주의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었던 경향이 없지 않지만, 거기에는 분명 경계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음을 최근의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sup>32)</sup>

이에 비해, 90년대 역사수정주의의 네이션 관념은 혼란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니시오 간지는 “무의식 가운데 연속성의 관념을 품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역사인식이다”라고 한다.<sup>33)</sup> 즉 니시오에 의하면, 일본의 과거 역사 안에 존재하는 영적(靈的) 진실은 다른 민족에게는 전달이 불가능하고 ‘일본 민족’만이 특권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초주의적인 발상이 또렷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한편 니시오와는 그 수준을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의 경우에도 원초주의적인 네이션 관념을 드러내는데, 사카모토는

자기들의 내력(來歷)을 이야기하는 고유의 역사를 가지지 않는 국민은, 고유의 역사를 가지는 다른 국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나라 조상들에 대한 공감(共感)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조상에 대한 공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sup>34)</sup>

어느 나라건 독자적인 역사상과 각기 다른 역사의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 안이하게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다.<sup>35)</sup>

31) 吉野耕作(1997), pp. 104-105.

32) 요시노는 이에 관한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다. 吉野耕作(1997), pp. 62-65. 여기서 요시노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로부터 히라타 아즈타네(平田篤胤)에까지 이어지는 에도기 국학의 경계주의적 네이션 관념이, 일본문화론의 경계주의적 관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33) 西尾幹二, 『國民の歴史』(東京: 扶桑社, 1999), p. 42.

34) 坂本多加雄, 『歴史教育を考える: 日本人は歴史を取り戻せるか』(東京: PHP研究所, 1998), p. 26.

35) 坂本多加雄, 『VOICE』, 第230号(1997年 2月), p. 111. 임성모, 「일본 ‘역사수정주의’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가 기본적으로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카모토는 다른 한편으로,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류의 논의 혹은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의 '만들어진 전통' 식의 발상을 드러냄으로써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즉 사카모토는 "원래 국가나 국민이라는 관념은 어떤 의미에서 픽션(fiction)이다. 그것은 인민이나 민중 또는 국제사회 같은 개념이 픽션인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역사교육의 목표로 상정하는 '국민형성의 이야기' 역시 픽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사카모토는

한 사람의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단지 현재 시점에서의 성격, 속성, 신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와의 차이가 문제된다. 인생의 다양한 시절에 자기에게 생긴 변화 과정을 그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자기가 '누구'인지가 새삼 자각 되고, 또 타자로부터도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민'도 또한 이 개인의 경우처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이션에 대한 경계주의적 관념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 있다. 즉 사카모토에게 있어서 네이션이란 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그 타자의 이야기와는 구분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사키 미노루(岩崎稔)가 지적하듯, 사카모토에 있어서 네이션의 정체성은 '인듯 보기에는 대화적인 구조 속에서 제시되고 있

의 역사서술론: 사카모토 타카오를 중심으로, 『歴史教育』 제82집(2002년 6월), p. 171에서 재인용.

36) 坂本多加雄, 「歴史教科書はいかに書かれるべきか」,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編, 『新しい日本の歴史が始まる: '自虐史観'を超えて』(東京: 幻冬舎, 1997), pp. 200-201. 강조는 인용자.

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사카모토는

물론 정통적인 역사를 구성하는 사건이나 인물 범위의 경계 영역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일본사(日本史)라 불리는 것에 대해 그 나름의 관념이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sup>38)</sup>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원초주의적인 네이션 관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역사 서술이 결국 상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픽션인 한, '우리 일본인'이라는 신념에 의거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문화론이나 역사수정주의의 네이션 관념은, 원초주의의 영역으로 고집스럽게 침잠해 들어간 가토의 논의와는 명료하게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내가 내가 아니라면 타자를 만날 수는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가토의 논의는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네이션이 형성되어 간다는 경계주의의 관념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토는, 경계주의의 '공간' 차원보다는, 원초주의의 '시간' 차원, 즉 네이션 관념의 과거와의 연관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메리카의 그늘』을 계기로 평론을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ぼく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중략) 내가 사용한 '우리들'이란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무한(無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병사를 지칭해 나는 '우리들'이라고 썼습니다. (중략) 그 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공투 세대라든가, 전후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중요하게 의도했던 것은 오히려 그 부정인데, 그것을 위해 여기에는 전부 다, 그야말로 **메이지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sup>39)</sup>

37) 岩崎稔, 「忘却のための'国民の物語': '來歴論'の來歴を考える」, 小森陽一・高橋哲哉共編(1998), pp. 177-182.

38) 坂本多加雄(1997), p. 200.

39) 加藤典洋・西谷修, 「世界戦争のトラウマと'日本人」, 『世界』, 通卷 第611号 (1995년 8월), p. 50. 강조는 인용자.



이는 '일본성'이라는 것이 실체론적(實體論的)으로 이미 존재하고 그것은 이미 내측과 외측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인 바, 이는 네이션을 바라봄에 있어서 원초주의적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이 일본문화론 그리고 역사수정주의의 네이션 관념과의 중요한 차이이다.

### 3) 단일민족관의 변용

한편 일본문화론과 역사수정주의는 모두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에 대한 단일민족적 관점, 즉 소여(所興)로서의 일본 민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의 논단에서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관점이었다. 심지어 전후 진보적 근대주의자의 대표라고 할 만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경우에도 이 점은 다르지 않았다. 마루야마는

적어도 고도의 공업국가 가운데 일본만큼 민족적 등질성(等質性)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략) 일본이 한편으로는 고도공업국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이전부터 '미개민족'의 특징이라고 해온 놀라울 정도의 민족등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sup>40)</sup>

라고 한다. 마루야마 역시 '민족적 등질성'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 리버럴리스트이면서 보수파로 분류되는 와쓰지 데쓰로에게 '민족적 등질성'의 가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와쓰지는 말한다.

40) 丸山眞男, 『丸山眞男集 12』(東京: 岩波書店, 1996), pp. 142-143. 강상중, 『내셔널리즘』(서울: 이산, 2004), pp. 179-180에서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일본 국민이란 언어·습속·역사 등을 공동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인 동시에, 일본 국가의 인민이다. 이 생각은 조선과 타이완이 일본국의 판도에 있던 시대에는, 조선인과 타이완인을 일본 국민 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에 속하는 인민을 부르는 정식 호칭은 '일본 신민'이고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통례상으로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의미를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중략) 당시 왕성하게 행해졌던 일본 국민성의 논의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 조선인이나 타이완인의 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일본 국민 속에 조선인과 타이완인이 포함되지 않는 편이 국민 개념으로서 옳바른 것이다.<sup>41)</sup>

따라서 주지하듯 와쓰지의 '문화공동체론'과 깊은 논리적 친근성을 가진 일본문화론이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 관념에 서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논했던 것처럼, 일본문화론의 기본적 논조는 '일본 민족만의 개별성' 혹은 '서양과는 구별되는 일본 민족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 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상정되어, 일본문화론에서 말하는 '일본인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인종화 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번역 불가능한' 일본적 표현이나 개념의 예시를 통해 일본어 속에 일본인만 아는 '우리들만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단일한 일본 민족'이라는 전제 위에,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성의 문화가 일본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발상은 일본문화론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요시노는 이를 '문화의 인종적 소유'라고 표현했다.<sup>42)</sup>

그러나 이러한 단일 일본 민족관은 1990년 무렵 이후에는 일본의 논단에서도 '거의 신화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1) 和辻哲郎, 『國民全體の表現者』, 『和辻哲郎全集 第14巻』(東京: 岩波書店, 1962). 尹健次, 『日本: 그 국가·민족·국민』(서울: 일월서각, 1997), p. 189에서 재인용. 강조는 재인용자. 와쓰지의 이 논문은 1948년 9월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

42) 吉野耕作(1997), pp. 148-159.



이에 선구적으로 기여한 논자는 아마도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일 것인데, 이후 오구마 에이지 등의 여러 논자들의 연구에 의해 재확인되었고,<sup>43)</sup> 이는 곧 마루야마를 포함하여 이전의 일본 지식인들이 ‘허구적 민족성’으로서의 ‘일본인’의 역사적 선험성을 불문에 부쳐왔음을 폭로하는 것, 즉 에티엔느 발리바르(Etienne Balibar)가 말한 ‘허구적 민족성’(l'ethnicité fictive, fictive ethnicity)으로서의 일본인의 정체성이 파열되는 순간이기도 했다.<sup>44)</sup>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역사수정주의나 가토의 논의 모두에서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일본 민족을 일방적으로 전제하지는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역사수정주의의 민족 관념은 기본적으로는 소여(所興)로서의 민족, 즉 단일민족 관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카모토는

‘우리 일본인’은 실로 생활자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 위에 실감할 수 있는 존재다. 즉 ‘일본국민’이란 거의 동일한 인종적 특징을 갖추고, 동일한 언어를 가지며, 동일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여(所興)의 자연적 조건 때문에 굳이 ‘국민’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의 같은 것이 개재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관념이다.<sup>45)</sup>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일본이라는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일면 모순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논의가 ‘네이션’을 일종의 구성물로 파악하는 시점을 동시에 취

43) 網野善彦, 『日本論の視座: 列島の社會と國家』(東京: 小學館, 1990); 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東京: 新曜社, 1995).

44)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1991).

45)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國家』(東京: 小学館, 2001), p. 148.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앤더슨이나 홉스봄의 논의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입론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거친 일반화를 시도해보자면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대중적인 차원의 ‘운동’에서는 단일 민족의 관념을,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구성물로서의 민족’(네이션)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생각해볼 때, 1995년 무렵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가토의 논의에서 단일 민족 일본이라는 전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가토는 ‘공동성’(共同性)이라는 단어 대신 ‘공공성’(公共性)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토는

나는 (지난 번 논문인) 「말투의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파고들어, **공동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죽은 자들과의 관계를 공공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인격분열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썼다. 여기서 죽은 자와의 관계를 좀 더 넓게 타자와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경우, 타자와의 관계가 공동적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기초로 하는 집합성 정도의 의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패전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공동적인 관계로 묶는 하나의 계기로 존재했다. 그럼으로써 예컨대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향」이라든가 르낭의 「국민이란 무엇인가」 등의 획기적인 국민론이 패전을 계기로 나타났던 것인데, 「말투의 문제」에서 나는 세계전쟁 이후 패전의 의미는 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은 **거꾸로 죽은 자와 공동적이거나 하면 국민을 분열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sup>46)</sup>

라고 한다. 이 점은 가토의 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니시타니 오사무(西谷修)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장 뤽 낭시(Jean-Luc

46) 加藤典洋, 『敗戦後論』(東京: 講談社, 1997), p. 319. 괄호 안 설명 및 강조는 인용자. 편의상 한국어 표현은 번역본을 사용했다. 가토 노리히로(1998), p. 257.

Nancy)를 인용하면서 니시타니가 말하는바 ‘일본인을 소어로 하는 자’가 있다면 ‘조선인을 소어로 하는 자, 중국인을 소어로 하는 자’도 일본 안에는 있으며, 이들을 다 포함하여 새로운 주체 즉 ‘우리 일본인’을 형성하자는 것이 자신의 논의라는 것이다.<sup>47)</sup> 보수파인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는 이 점을 비판한 바 있지만,<sup>48)</sup> 바로 이 점에서 가토와 니시타니는 보수파들과는 선을 긋고자 시도하고 있다. 가토가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일본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며, 결과적으로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적 귀속의 복잡성을 뛰어넘는 주체를 만들자, 가토의 표현으로는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인간인 채로,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sup>4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토의 이러한 단일 민족적인 관념으로부터의 이탈 시도는 매우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유는 이론적인 대립에서의 외로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아직 『패전후론』 논쟁에 참가한 그 누구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혼란은 요약하자면, 가토가 근대주의(modernism)의 시점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원초주의(primordialism)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가토가 원초주의적 네이션관에서 있다는 점은 앞에서 상세하게 논의했다. 문제는 에스노스(ethnos)적인 의미에서의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근대주의적인 그의 시도가, 애초부터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과는 모순된 것이라는 점이다.

47) 柄谷行人·浅田彰·西谷修·高橋哲哉(1997), pp. 9-10.

48) 佐伯啓思, 「『國家』의 ‘共同性’とは何か」, 『発言者』, 通卷 第37卷 (1997年 5月), pp. 72-77.

49) 加藤典洋·姜尙中, 「對談: 敗戦後論とアイデンティティ」, 『情況』, 第2期 7卷 1号, 通卷 第59号 (1996年 1-2月 合併号), pp. 16-17.

원초주의와 경계주의의 대립이 ‘민족이 민족으로서 자격을 갖는 이유’를 둘러싼 이론적 충돌이라면, ‘민족 역사의 깊이’에 관한 이론적 대립으로 역사주의(historicism)와 근대주의(modernism)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주의의 대표적인 논자로는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를 들어야 할 것이다. 찰스 킬리(Charles Tilly)나 잔프랑코 쏫지(Gianfranco Poggi) 같은 역사사회학파의 지적 세례를 받은 스미스는, 킬리나 쏫지의 국가론적 설명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면서 역사주의 이론을 진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는 프랑스어에서 가져와 영어식으로 발음한 에스니(ethnie)라는 단어를 학술용어로 도입했는데, 이는 근대적 네이션이 성립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어떠한 공동체, 말하자면 근대적 네이션의 원형이다. 요컨대 스미스에 의하자면, 정치적 단위로서의 근대적 네이션에 대한 설명에서, 국민주권과 같은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근대 이전 왕국 간의 전쟁 속에서 네이션의 원형이 되는 에스니가 에스닉 국가(ethnic state)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근대에서 부활하여, 문화적·정치적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sup>50)</sup>

한편 근대주의의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역시 베네딕트 앤더슨과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사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라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내셔널리즘이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점이다. 주지하듯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 혹은 문화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가 내셔널리즘’이라고 정의하는 겔너는, 산업화에 의해 전통적 사회구조가 파괴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50)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71); Anthony D. Smith, *The Ethnic Revi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UK: Blackwell, 1986).

통합을 창조·유지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교육 기능을 담당한 국가에 의해 통합의 목적으로 내셔널리즘이 생겨나고, 이 내셔널리즘은 민족이 없는 곳에서 민족이 생겨나게 한다고 주장했다.<sup>51)</sup> 크게 보아 겔너와 비슷한 논지를 펼치는 앤더슨의 경우, 근대에 발달한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근대의 산물인 내셔널리즘이 민족(네이션)이라는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의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해낸다고 논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근대주의의 입장에서는 네이션을 근대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민족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단절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족을 내셔널리즘이 만들어낸 구성물로 보는 근대주의의 시점을 고려해볼 때, 에스노스적 의미에서의 '단일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가토는 자신의 논문에서, 앤더슨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시점이 근대주의에서 있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고, 이는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와 호응하고 있다. 앤더슨의 저술에서 '기묘한 근대적 고독! ... 그리도 많은 나라가 이런 종류의 무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 부재 주민들의 국적을 밝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는 부분을 가토가 강조하며 인용<sup>52)</sup>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듯 '다양한 인간이 다양한 인간인 채로,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가토의 주장이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 가토가,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 '우리들'(ぼく達)이란, '1930년대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병사를 지칭해, 그

51)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52) 가토 노리히로(1998), p. 91. 한편 앤더슨의 원문을 보려면, Anderson(1983), p. 17.

야말로 메이지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가토가 근대주의의 시점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메이지기까지 포함해'라고 한 것에는, 일본 근대국가 형성기 이후에야 소위 '우리들'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가토가 염두에 두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가토의 논의는 혼란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토가 말하는 '실감' 혹은 '우리들 의식'은, 단일민족 관념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의 논의와의 연관성에서 생각해볼 때, 일본 근대 성립 이후에 생겨난 것임을 가토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이 '실감'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가토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가토가 말하는 '일본인으로서의 실감'이란, '깨려고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토관의 안쪽에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가토가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동포의식'이나 '향수의 주체'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는 가토가 '타자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네이션' 혹은 '내가 아니라면 타자를 만날 수 없다'는 원초주의의 입장에서 서있음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자세히 살폈듯 가토는 동시에 근대주의의 시점을 취하려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앤더슨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근대주의에서의 네이션은 '제한된'(limited)된 것이며, 이는 이미 외부에 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계주의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sup>53)</sup> 거꾸로 원초주의는 당연히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근대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원초주의에

53) 앤더슨은 네이션을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and imagined as both inherently limited and sovereign"라고 정의하고 있다. Anderson(1983), p. 15.

한쪽 발을 딛고서 다른 한쪽 발은 근대주의에 두려고 하는 가토의 시도는 모순이다.<sup>54)</sup> 심지어 가토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표현으로는 “역사성과 허구성이란 ‘서로를 배제하는 공존 불가능한 개념’인 것이기 때문이다.”<sup>55)</sup>

#### 4) 이중적인 타자 인식

한편 현실 세계에서의 타자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토의 논의는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스트의 타자인식과 공통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양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이중적이란 점에서 그러한데, 서양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인식의 이중성은, 서양과의 조우 이후 일본 내셔널리스트, 아니 지식인 일반의 의식 밑바닥에서 ‘낮게 계속해서 울리는 음’(執拗低音, basso ostinato)과 같은 것이었다.<sup>56)</sup> 예컨대 중국을 ‘반개’(半開)라 하고 그 밑에 조선을 ‘야만’(野蠻)으로 배치하면서 서양을 일본 근대화의 모범으로 삼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의 개략(文明論の概略)』은 그 한 전형이며,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의 여러 양상에서도 이 ‘집요저음’의 울림은 미묘한 변주를 일으키면서도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고코로(心) 그룹의 일원으로 국체호지(國體護持) 세력의

54) 그러나 역사주의의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초주의의 관념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압스트롱이나 이효덕은 역사주의의 입장에 서면서도 경계주의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는 점을 이미 위에서 지적했다.

55) 加藤典洋(1995), p. 23.

56) ‘執拗低音’이란 말은 물론 마루야마의 논문에서 빌린 것이다. 丸山眞男, 「原型・古層・執拗低音: 日本思想史方法論についての私の歩み」, 丸山眞男 外編, 『日本文化のかくられた形』(東京: 岩波書店, 1987). 경우에 따라서 ‘기조저음’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라 할 만한 와쓰지 데쓰로에게 있어서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결락되어 있었던 것은 당연했다. 와쓰지의 1935년 저술 『풍토』(風土)는 타민족의 국민성을 단정하는 작업을 통해 일본인인 자기를 반사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히 ‘지나인’에 대한 심한 멸시관이 중국의 풍토적 특성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으며,<sup>57)</sup> 궁극적으로는 비일본적 세계에 대한 반발을 배경으로 한 일본 국민의 전체성, 존황심의 위대함을 논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와쓰지에 의하면 동일한 언어·습속·역사·신념 등을 가진 ‘문화공동체’로서의 국민의 실체는 항상 천황의 형상을 통해 살아 있는 전체성으로 표현된다.<sup>58)</sup> 이런 그가 종전을 전후한 미국과의 담합체제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미국은 와쓰지로 대표되는 보수 이데올로그들로 하여금 ‘일본인들이 일본인들만의 이야기를 하도록’ 조장했다. 즉 일본의 국민적 전통과 문화의 통일성이라는 발상은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에 활용할 도구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공동체 관념을 기반으로 한 일본문화론의 타자 인식은 대단히 이중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거기에 아시아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처음부터 존재하기 어려웠으며, 거꾸로 서양에 대해서는 열등감으로 충동되는 이중적인 타자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제 일본문화론이라는 형태로 발제된 이 시기의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서양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특수한’ 일본을 구성해내게 되었다. 이 구성 작업은 기본적으로 서양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이는 완벽한 모방

57) 和辻哲郎, 『風土: 人間學の考察』(東京: 岩波書店, 1935).

58) 和辻哲郎(1962), p. 337. 강상중(2004), p. 135에서 재인용. 이 논문은 원래 1948년에 발표된 것이다.



이어서는 안 된다. ‘열등한’ 아시아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양과 ‘똑같은’ 것이어서는 ‘독자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그러나 아주 같지는 않은’(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주체의 위치를 욕망하는 일종의 이중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sup>59)</sup> 이리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함으로써 자기를 구성해내는 서양의 차별적인 거리두기(distancing)의 제스처를 일본은 부지불식간에 ‘모방’하기에 이르렀다.<sup>60)</sup> 이렇게 ‘대조에 의해’ 아이덴티티가 구성되는 이른바 ‘쌍-형상화(対-形象化) 도식’이 성립했다.<sup>61)</sup> 이 ‘쌍-형상화 도식’으로 일본과 서양이라는 양자만이 존재할 뿐, 아시아가 긍정적으로 그려질 여지는 없는 이중적인 타자인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역사수정주의 역시 이중적인 타자인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일본문화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즉 역사수정주의에서의 이중적인 타자 인식이라는 ‘집요저음’은, 예컨대 아시아를 ‘문명화하지 못하고’, ‘열등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이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서양을 ‘봉건의 유산을 극복함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한’, ‘앞선 문명의 전도자’라고 그리는 점에서 일본문화론의 그것과 같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메이지유신을 찬양하고, 그에 의한 ‘근대화의 결과 서양(러시아)을 물리친 일본이 성립할 수 있었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러일전쟁은 이상화된다. 이제 일본은 아

5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 86.

60) 酒井直樹(2001), p. 238.

61) 이는 사카이 나오키가 사용하는 개념이다. 쌍-형상화(対-形象化) 도식에 대해서 사카이는 그의 저작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酒井直樹, 『日本社会科学方法序説: 日本思想という問題』, 山之内靖 外編, 『岩波講座, 社会科学の方法 III: 理論社会科学の思想』(東京: 岩波書店, 1993), pp. 1-37. 사카이는 이 ‘쌍-형상화 도식’을 영어저작에서는 ‘the Schema of Co-figuration’이라고 표현한다.

시아와는 다른 차원,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승격되었지만, 한편으로 거기에는 여전히 모방, 따라잡기의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일본문화론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었음은 예컨대

메이지유신은 일본이 서구열강의 압력 속에서 식민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독립 국민국가를 만들어 낸 위대한 내셔널리즘 혁명이다. 이 혁명에 의하여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sup>62)</sup>

라고 하여 그 근대적인 발전성을 부각한 반면,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의 양반들은 몇 개의 파벌에 속하여 세력이 있는 일족이 세도정치를 전개하고, 음모와 책모로 가득한 정권, 관직 획득 경쟁을 계속 반복했다. 이러한 투쟁이 이미 몇백 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연성을 결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메이지유신과 같은 시대에 부합하는 자기 변혁을 이루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sup>63)</sup>

라고 하면서, 후쿠자와 이래의 대(對) 아시아 인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데서 쉽게 드러난다. 그러나 미묘한 변주의 울림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전범재판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서양의 억압성을 고발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일본은 서양에 의해 ‘부당하게’, ‘억눌린’ 것으로 묘사된다. 니시오 간지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이러한 재판의 발상은 원래부터 없었다. 여러 국민의 위에 어떤 법정을 설치하고 그것에 의해 규칙을 결정하여 재판한다고 하는 발상은, 우월한 서양적이며 기독교적인 ‘심판’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

62) 藤岡信勝, 『汚辱の近現代史』(東京: 徳間書店, 1996), p. 78.

63) 西尾幹二(1999), p. 518.



서 그로티우스의 경우도 월슨의 경우도 고상한 뜻의 이면에는 이교도에 대하여 벗어날 수 없는 편견과 독선이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는 점에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sup>64)</sup>

여기에서는 '서양'의 비교대상이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지난(あの) 전쟁이,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구해내기 위한 해방전쟁'이라는, 이미 1960년대에 하야시 후사오(林房雄)가 제기했던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전쟁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특징이다. '일본'이 아닌 '동아시아'가 서양의 대조로 설정되어 있는 점 이외에도, 여기에는 '아시아를 아래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양을 이상화하지 않고', 오히려 '탄핵하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문화론의 타자 인식에서 비껴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쉽다. 그래서 합동주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대 서양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이중성을 띤다"고 했던 것이다.<sup>65)</sup> 그러나 합동주의 이 지적은 외견적으로는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때문에 이면에 숨어 있는 일본 역사수정주의 내셔널리즘과 서양(특히 미국) 제국적 내셔널리즘(imperial nationalism) 사이의 공범관계를 파헤치지는 못했다.<sup>66)</sup>

우선 전쟁책임과 관련한 국제법의 문제에서, 서양의 대조로서 '일본'이 아닌 '동아시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당시 일본의 경계가 옆으로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는 일본 '국민'의 개념보다는 '신민'의 개념이 강조

되어, '서양 대 일본'이 아닌 '서양 대 동아시아'의 대결구도가 일본 제국주의 자들에 의해 의도적·전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야시의 대동아전쟁 긍정론의 핵심 역시 이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 일본 자아 인식의 특수성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 내실에 있어서 '신민' 간의 평등이 보장되었던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일견 '서양을 탄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외견적·단기적으로는 보편으로서의 서양 중심주의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파악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서양'이라는 상상된 통일성을 전제함으로써 거꾸로 '아시아'의 상상된 통일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임을 간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지적인 아시아의 문화들이 '통일된' 것으로 상정되며, 바로 이 대목에서 서양 중심주의적 보편주의와 (동)아시아적 특수주의 사이의 공범성(전형적인 탈식민주의적 공범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는 여전히 '보편'으로서의 서양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기를 형성하는 거울로서의 서양'이라는 '쌍-형상화 도식'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상상된 통일성'으로서의 '동아시아 내부의 신민'들에게 실제로는 매우 가혹한 차별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 되었던 서양 국제법 체제 속으로 일본이 신속히 참여해 들어갔다는 사실은 '쌍-형상화 도식'이 기능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타자 인식은 후쿠자와 이래의 그것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아시아는 그들에게 열등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탄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타자였다. 서양에 대한 인식에서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하야시의 적자(嫡子)였으므로,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억누르는 타자'로서의 서양을 고발하는 '탄핵'의 형태를 띠었으나, 본질적으로는

64) 西尾幹二(1999), p. 467.

65) 합동주,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 인식』, 이계황 외 (공저), 『기억의 전쟁: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 40.

66) 제국적 내셔널리즘(imperial nationalism)이라는 말은 사카이 나오키에게서 빌린 것이다.

서양에 대한 열등감으로 충동되는 인식 구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가토의 『패전후론』에서의 타자 인식은 매우 세련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 일본의 논단에서는 그를 내셔널리스트라고 단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기도 한 것이다. 가토는 아시아를 ‘열등하다’거나, ‘문명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는 시점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의 지난 전쟁은 무의미한 전쟁, 잘못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사죄주체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결락되어 있다는 주장은 몇몇 논자를 제외하고는 제기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서양, 특히 미국에 대한 가토의 인식은 오히려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가토는 전후 일본의 헌법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억누르는 타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가토의 평론집 『아메리카의 그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서 가토는

우리들을 ‘공기’처럼 덮고 있는 ‘나약함’이야말로, 미국에 대한 굴종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sup>67)</sup>

라고 한다. 역시 ‘억누르는 타자’로서의 미국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토는 현행 헌법은 강요된 것이므로 재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그가 중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일본인만의 이야기’, ‘일본인의 실감’을 중요시하는 가토가, 헌법을 재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은 그 ‘강요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수속절차이다.<sup>68)</sup> 일본의 현행 헌법

67) 加藤典洋, 『アメリカの影: 戦後再見』(東京: 講談社, 1995), p. 29.

68) 加藤典洋·姜尙中(1996), pp. 22-25.

은 국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토의 이 논리는 ‘국민주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에 의한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더구나 가토가 재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헌법 조항은 제9조, 즉 무력행사의 금지 조항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조항, 즉 국민주권의 원칙을 포함한 다른 모든 현행헌법의 원칙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토가 메이지헌법하에서의 ‘군주주권’의 원칙, 혹은 그 이전의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정치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가토는 헌법이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가 다시 재선택해야 한다는 헌법은, 메이지헌법의 형태와 같은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에서와 같은 ‘국민주권’의 형태이다. 즉 서양 근대 이후의 ‘국민주권론’을 그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이 모순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하시가 지적하듯 “헌법이 강요된 것이라면, 국민주권 역시 강요된 것”이지만,<sup>69)</sup> 가토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보려하지 않는다. 가토의 발상대로라면, 국민주권의 원칙 역시 ‘외래사상’이거나 ‘빌린 것’이지 원래 ‘일본인의 이야기’, 혹은 ‘일본인의 실감’에 의한 것은 아닌 것이다.

요약하자면, 가토에게 ‘국민주권’이 강요되었다는 의식은 없으며 오히려 획득·유지하고 싶은 것인데, 이는 가토의 서양에 대한 인식 역시 ‘쌍-형상화 도식’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다. 즉 가토에게 서양은 ‘억누르는 타자’인 동시에, ‘모방의 대상’, ‘그러나 일본이 그와 완전히 같지는 않아야 하는 대상’으로 관념되고 있다. 서양, 특히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집요저음’의 울림은 큰 변조 없이 가토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9) 高橋哲哉(1999), pp. 269-270.

아시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미 언급했듯 역사수정주의자들과 같은 노골적인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논의 여러 군데에서 ‘아시아를 경시하는’ 그의 기본 입장은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패전후론』이라는 책의 제목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시타니 오사무가 지적하듯 ‘종전(終戰)이 아닌 ‘패전(敗戰)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일본의 ‘지난’ 전쟁이 아시아에 대한 전쟁이기도 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대(對) 영·미 전쟁’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sup>70)</sup> 이 전쟁은 아시아 해방전쟁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서양과 대적한 아시아의 우두머리라는, 하야시나 후쿠자와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에 의해 헌법이 강요될 당시의 상황은 매우 면밀하게 살피는 가토이지만, 2,000만 아시아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죽은 쇼와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매달리는 신봉자를 단 한 사람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천황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라고 한다.<sup>71)</sup> 여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결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신봉자를 두지 못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이다.<sup>72)</sup>

헌법개정론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가토 스스로 지금의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을 재선택할 경우 상당한 가능성으로 제9조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70) 加藤典洋·西谷修(1995), p. 45.

71) 加藤典洋(1997), pp. 74-75.

72) 이 점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로 다음을 보라.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9). 특히 11장.

핵무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토는 ‘나쁜’ 헌법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위험성을 무시할 만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일본의 군사위협으로부터 위협받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전후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타자 인식에 있어서의 이중성이란 ‘집요저음’은 가토에게도 연속성을 가지고 울리고 있다. 서양에 대한 인식은 ‘쌍-형상화 도식’을 근간으로 하여 모방의 대상으로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한 인식 역시 후쿠자와 이래의 그것과 같다. 다만, 미국을 ‘억누르는 타자’로 보는 그의 시각은, 역사수정주의에서의 전범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공명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폈듯이, 이 역시 보편으로서의 서양을 해체하는 논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쌍-형상화 도식’ 안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진 ‘이중의 모방화 욕구’의 한 표현태이다.

한편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앞에서 살피본 것처럼 내이션을 바라보는 가토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초주의’적인 것이지만, 이는 철저히 못한 것으로, 논의에 따라 경계주의적인 시각과 원초주의적인 시각을 가토가 혼란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가토가 근대주의적 시각에 빠져 있음 역시 앞에서 논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가토의 타자 인식, 특히 서양에 대한 인식이 ‘쌍-형상화 도식’에 빠져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 도식은 그 본질적 개념이 경계주의적인 시점 위에서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토가 말하는 ‘깨려고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 일본성’이란 사실, ‘쌍-형상화 도식’ 안에서 모방 욕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 절에서 지적

했으며, 따라서 가토의 원초주의적인 네이션 관념은 그의 '주체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 것이다. 다카하시의 표현을 빌자면, 가토는 '순수 주체성 철학'으로 도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가토를 응원하는 니시타니조차도 지적하듯 "주체는 타자와의 연결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것"<sup>73)</sup>임은 이제 분명하기 때문이다.

#### 4. 결론

이 논문은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논의에서 『패전후론』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7, 80년대의 일본문화론과 90년대 역사수정주의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시점을 취하면서 가토 논의의 특징을 내셔널리즘 이론의 틀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그의 논의는 심각한 논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가토 논의의 특징을 ①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 ②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 ③ 단일민족관의 변용, ④ 이중적인 타자인식이라는 4가지로 규정했는데,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특징은 마루야마가 말한 '전기적 내셔널리즘'의 성격에서 이탈한 것으로, 이는 허친슨이 말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의 이념형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가토가 다카하시와의 논쟁 과정에서 집요하게 고집하는 '주체-타자' 관계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고려할 때, 가토의 논의는 '네이션에 관한 원초주의적 관념'에 빠져 있는 것임을 지적했는데, 이는 동시에 가토의 '단일민족

73) 加藤典洋, 西谷修(1995), pp. 56-57.

관념으로부터의 이탈 시도'와는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가토가 원초주의에 한 쪽 발을 딛으면서도, 동시에 (에스노스적인 의미에서의) 단일민족 관념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근대주의적 네이션 관념을 취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한편, 서양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가토의 시각은 메이지기 이후 일본 내셔널리스트 타자인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중적인 타자인식'임을 사카이의 '쌍-형상화 도식'을 이용하여 논했는데, 이 역시 가토의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과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임을 지적했다.

결국, 이중적인 타자인식 역시 문제이지만, 가토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원초주의적 네이션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점으로 귀착된다. 타자와의 관계없이 일본인의 '실감'을 중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애도행위를 통해 독자적인 책임주체를 형성하려는 그의 시도는, 위에서 살폈듯 그의 논의가 가진 다른 특징들과 모순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전후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콜로니얼적 귀속의 복잡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 전쟁 당시 '신민'의 위치로 강제된 편입되었다가 종전 이후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당한 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후 귀화라는 수단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포스트 콜로니얼적 주체들에게, '일본인의 실감'에 기반한 애도행위를 통해 공공성을 지닌 책임주체를 형성하지는 주장은, 강상중이 지적하듯 "실감으로서도 사상으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sup>74)</sup>

둘째, 가토의 논의는 '책임주체' 즉 '사죄주체로서의 국민'의 부재를 이유

74) 加藤典洋·姜尙中(1996), p. 13.

로 일본 국가가 전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격분열이라는 정신분석학적 도식을 인용하여 자기의 트라우마를 이유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논의이며, 타자, 특히 제국주의 전쟁 시기 참혹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인근 국가들이 이에 공감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 전후 실제적인 '주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법적인 의미에서의 일본 '국민'이 일본 국가가 전쟁책임을 다하도록 추궁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면죄 시도이기도 한 것이다.



## *Haisengoron* and Postwar Japanese Nationalism: An Analytical Study based on Contemporary Nationalism Theory

Kim, Man-Jin

M.A. 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ducer in MBC,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from a social scientific perspective, the discussions surrounding Kato Norihiro's *Haisengoron* (Since defeat). For this purpose, the thesis analyzes Kato's works and their counterarguments with the framework of contemporary nationalism theor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ramework of current nationalism theory, the research also tries to make clear on which position Kato's argument would be placed in the whole range of Japanese nationalism debates when compared with typical postwar nationalism arguments such as 'nihonbunkaron (nihonjinron)', and 'historical revisionism'. In so doing, the thesis argues that Kato's *Haisengoron* has serious logical flaws. In this regard, the thesis defines the four characteristics of Kato's *Haisengoron* as follows: ① bottom-up nationalism, ② primordialistic conception of the nation, ③ break with the single-ethnicity nation concept, ④ dual recognition of 'the other'.

Bottom-up nationalism means that Kato's arguments separate themselves from Maruyama Masao's 'initial-stage nationalism', and approximates the ideal type of John Hutchinson's 'cultural nationalism'.

Meanwhile, considering the issue of priority in 'subject-other' relationship, it seems clear that *Haisengoron* is deeply entangled with the primordialistic conception of the nation, a feature which contradicts Kato's calls for a break with the single-ethnicity nation concept. This is due to the inconsistency that occurs when Kato adopts the modernistic conception of nation (modernism approach) which departs from the single-ethnicity nation as a kind of ethnos while still attaching himself to the primordialistic nation concept.

Additionally, by using Sakai Naoki's 'the Schema of Co-figuration', the research argues that *Haisengoron*'s recognition of the West and Asia is basically a continuation of the dualism in Japanese nationalists' recognition of the other after the Meiji Restoration. This dual recognition of the other also logically contradicts Kato's primordialistic nation concept, and is closer to the 'boundary approach'.

### •Keywords

Kato Norihiro, *Haisengoron*, the debate on the historical subject (rekishi shutai ronsō), Japanese nationalism, primordial nation